



제목	마라톤 BC 490: 페르시아 제국의 무패 신화를 깨뜨린 마라톤 전투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플레닛미디어
발행일	2007. 1. 19.
저자	니콜라스 세쿤다 정은비 옮김
출판국가	대한민국
페이지수	181
ISBN 또는 ISSN	978-8992326087

내용 요약

이 책은 기원전 490년 아테네군과 페르시아군이 격돌한 마라톤 전투를 전략적인 측면에서 파악한 글이다. 아테네가 이오니아 반란에 개입하게 되었고, 그것이 다시 페르시아의 1차 그리스 침략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전투의 책임은 아테네에게 있다고 보았다. 당시 아테네의 군지휘관은 칼리마코스였는데, 그의 역할은 과소평가되었다. 반면 60대 초반으로 아테네에 살았던 것이 불과 1, 2년에 지나지 않는 밀티아데스의 역할은 과대포장되었다.

페르시아의 지휘관은 왕의 대리인인 태수로서 다티스가 그 직책을 맡았다. 아테네군은 오직 호플리테(중장보병)로 구성된 보병부대뿐이었다. 페르시아군에 대해서는 후대 사가들이 과장하고 있는데, 플라톤은 다티스가 50만 명의 병사와 300척의 함선을 보유했다고 말했다.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이다. 전략적으로 주도권은 페르시아에게 있었고, 그리스인들은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전쟁 과정은 페르시아군의 에레트리아 함락, 마라톤 상륙, 아테네군의 마라톤으로의 행군 등으로 이어졌다. 전투가 시작될 때 아테네군이 속보로 돌격했고, 페르시아 궁수들은 적군을 사정거리 안에 들게 하려고 돌진했다. 좌우 양익에 있던 아테네인들과 플라타이아인들이 승리를 거두었다. 전술적인 측면에서 그리스인들과 페르시아인들이 서로의 장비와 전투 방식에 대해 사전에 알 수 없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반면 밀티아데스는 페르시아의 전투방식을 경험한 적이 있어서 페르시아인들이 지휘관과 정예부대를 중앙에 배치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가 아테네군의 중앙을 가장 약하게 배치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저자는 말한다.